



표지사진 : 지난 '후원의 밤' 행사에 슈레드 찬드라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이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JTS 통권 24호 7 · 8월

펴낸날 : 2000. 7. 10

펴낸이 : 법 료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윤기희, 김애경, 한갑수

이상임, 설성봉(부산JTS)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ungto.org

인터넷 : <http://www.jungto.org/jts>

인도

4 인도 등게스와리 소식

5 특집 | 제2차 JTS 국제 워크캠프
- 인도에서 함께하는 젊은 청년들

북한

6 지금 북한에서는 | 라진·선봉 현지보도
북한은 지금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7 몽골에서 온 소식
여기는 카라코룸입니다.

청소년

8 아름다운 청소년 | 서로를 알아가는 상담교육

10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

그리고

11 실업자를 위한 심성훈련

12 후원의밤스캐치 '우리가 함께여는 아름다운 세상'

14 '후원의 밤' 후원금 내주신분

19 후원의 소리 | 서로가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때

21 활동보고 및 안내

24 신규회원 명단

26 결연단체 현황

30 후원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재봉틀 소리가 요란합니다



모라탈 어머니회에서 여름 방학동안 모라탈 유치원에서 그동안 같고 닦은 재봉틀 실력을 발

휘해 4곳의- 수자타, 소라즈비가, 아자드비가, 만코시힐- 유치원생들이 입을 교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빨간색 셔츠에 남색 치마, 바지,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해 조끼달린 치마, 이렇게 4종류로 4백벌 정도를 만들겁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만드는 비용의 50%는 모라탈 어머니회 마을개발자금으로 저축하고 50%정도는 만든 사람들의 수입이 됩니다. 개인 수입도 생기고, 어머니회 자금도 마련하고, 재봉틀 실력도 늘리고, 어머니들끼리의 정도 두터워지고.. 여러가지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라탈 어머니회 회원들은 싱글병글..

수자타이카데미 방향 스케치

- 방학동안 상급생들과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특별 컴퓨터 교실이 하루 6시간씩 매일 있었구요, 상급생들은 그동안 오전에 유치원생들 지도 때문에 미흡했던 과목을 하루 3시간씩 특별 수업하고 있습니다.
- 5학년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도 매일

학교에 나와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학교 청소도 하고 그랬답니다. 특히 컴퓨터 CD를 이용해 일주일에 한번씩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 인기 폭발입니다.

• 6월 26일 개학입니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교사중 마을개발 리더 7명과 마노즈, 한국 실무진1명(정정임) 이렇게 9명이 켈커타 근교 있는 NGO 단체인 SHIS(Southern Health Improvement Samity)에 일주일 동안 견학을 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 동계스와리 지역의 마을개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가지게 되어 마을개발 사업이 좀 더 활기를 띠것 같습니다.

그밖의 소식들

- ♣ KOICA의 지원으로 짓고 있는 병원은 1층 건물 지붕 콘크리트가 이번엔 완공이 되면 7월중으로 2층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 ♣ 지금 인도는 7월에 있을 국제워크 캠프 준비에 한창입니다. 팀을 나누어서 숙소, 강당, 등등 준비하느라 다들 열심히입니다.
- ♣ 델리에 JTS사무실을 개원합니다. 7월 14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소: E-33 Anand Niketan Newdelhi 100021
전화: 91-11-410-6705





인·도·에·서·함·께·하·는·젊·은·청·년·들!

이라는 구호 아래 모인 대학생, 청년 90여명이 인도
의 뜨겁고 습한 대지위에서 자원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켈커타행 비행기를 탔습
니다. 이번 캠프는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인도 동게스와리 지역에서 미국, 일본, 동남
아 국가의 청년들, 동게스와리 주민들과 함
께 주로 마을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마을주변에 망고나무



도 심을 예정이고, 의료봉사팀은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의료혜택과
위생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동과 더불어 각국의 청년들과
나누는 문화교류의 시간도 기획되어 있습니다. 땀흘리는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도시의 청년들이 내적으로 보다 영글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보
니다. 또 미국, 일본, 제3세계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 교육이 6월 17-18일 안성에 있는 도안사에서 있었습니다. 참
가자중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짧고 굵게 진행되었는데요, 시종 화기에
애하고 기대에 부푼 분위기였습니다. 인도체험으로 손으로 카레를 먹는
연습도 하고, 인도말도 배우고, 인도현지 상황에 대한 얘기도 듣고, 어떤
태도로 자원봉사에 임해야 하는지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말로만 듣고
나름대로 생각한 인도에 대한 기대와 상상이 어떻게 깨져 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12일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여유시간을 갖은 다음 7
월 16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금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북한의 농업지원 현장에서-

우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북한의 10개 농장을 방문하여 모내기 현황과 병충해 예방에 대하여 토의와 기술지도를 하였다. 그 결과를 적어본다

JTS에서 보내준 비료 500톤이 5월 28일 온성에 도착하여 비료포장 그대로 각 농장에 나누어 주었고 덕분에 올해는 산량증산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8년, 99년 2

년동안의 지원으로 이곳 농장은 온성에서 가장 산량이 높았고 올해도 그동안 지원된 알모판, 비닐박막 등을 이용하고 영양토, 모판살초제를 지원받아 <모>의 상태가 가장 좋다. 그러나 5월초에 <벼립고병>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모>의 상황은 견실하지 못하다.

조선은 밀식농법으로 이랑사이를 40cm, 20cm로 하는데 비료가 없는 정황에서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는 비료를 쓸 수 있으므로 이랑사이를 50cm, 30cm로 넓게하는 시식재배 방법으로 모내기를 할 것이다. 모내기는 전부 사람 손으로 한다. 쓸 수 있

는 기계가 없기도 하지만 있더라도 기계가 주체농법에 맞게 제작된 것이어서 시식재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모>가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온성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중국이기에 기후조건은 거의 비슷하나 토양은 조건이 다르다. 온성은 산에서 흙이 밀려 내려온 토질이기 때문에 논에 썩레질을 하여 2-3일이 경과된 후에



모내기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질어서 <모>가 제대로 썩혀지지 않는다. 모내기를 한 후 4-5일이 지나서 <모살이> 기간이 끝나 뿌리가 안정되면 이때 살초제를 쓴다. 이 시기에 맞춰 약을 써야하는데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돌피(잡초)를 잡지 못한다. 만약 비료를 써도 살초제를 제때 쓰지 못하면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 올해는 기후가 나쁘고 영양토 등이 모자라 벼모가 약하고 모내기가 늦어서 농약을 쓰지 못하면 산량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는 5월말까지는 살초제와 살충제가 온성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는 카라코롬입니다

카라코롬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서남쪽으로 약 380km 떨어진 도시이며 인구는 10만여명이 사는 몽골에서는 규모가 있는 도시이다. 이곳은 9개의



박(우리나라의 면에 해당)이 있으며 시내 및 근교에 3개 박이 있고 초원지대에 6개 박이 있다. 이 도시는 옛날 징기스칸 시대에 수도였던 곳이다.

6월 5일 월요일 아침에 시청을 방문하여 사회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우리가 보낸 밀가루의 배분관계를 논의하고 피해목민 명단과 트럭 1대, 인부 1명을 지원받아 밀가루 80포대를 싣고 1번 박의 89가구에 배분을 나눴다. 배분전에 명단을 확인하고 배분원칙을 정했다. 카라코롬 전체에 1,200가구의 피해 목민이 있지만 초원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가구가 있어 약 80% 정도의 가구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배분 원칙은 가구당 40kg을 기준으로 하고, 식구가 적고 가족피해가 적은 가구는 20kg, 식구가 많고 가족피해가 많은 가구에는 60kg을

주기로 했다.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5인 가족이 한달에 밀가루 40kg, 고기 17kg 정도가 필요하다 한다.

먼저 1번 박을 박장과 같이 찾아갔다. 1번 박은 카라코롬시 근교에 위치한 박으로 주민들이 목축업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마을이었다. 집을 찾아가서 박장이 한국JTS에서 피해주민을 도와주러 왔다고 소개하고 명단에 적힌 이름과 가족사항등을 물어본 후 밀가루 40kg을 주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주민들은 처음 받아보는 밀가루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기뻐서 우는 할머니, 직접 양털로 만든 조그만 토끼 인형을 선물로 주는 아주머니 등 여러 사람을 만났다. 첫날 46가구를 방문하여 밀가루를 배분했다. 6월 5일 오후는 기온이 급강해서 내복을 입고 두꺼운 잠바를 입어도 강한 바람을 동반한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다.





서로를 알아가는 상담교육

청소년사업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심성수련을 마련했고, 늘 준비되어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인 모금봉사활동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통일준비교육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함께 해 나갈 청소년들의 어른 친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뽑는 것보다 상담교육을 받은 분들을 동참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담교육을 거친 어른이라면 청소년들을 만날 때 다치지 않게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상담교육이 초급과정과 심화과정을 각각 1회씩 마쳤습니다. 초급과정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 4회, 집단상담 실습과 세미나 4회를, 심화과정은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7회, 집단상담 실제 4회, 실습 2회를 가졌습니다. 초급과정 72명, 심화과정 34명, 청소년사업부의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초급과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참가자들이 이듬대신 별칭으로 낸 소감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두어 들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 초급과정-소나무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는 살아왔지만 항상 부딪치는 난관에 고심하면서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생각과 어려움이 또 비집고 들어가 얽히는 형국이었었는데, 복잡한 머리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열에너지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열나게 했을까를 생각하니 상담교육 받으러 와서 참회부터 해야하겠다.

❖ 초급과정-사람

집단상담 전과정 모두 느낌이 좋았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경험을 했고 진한 느낌을 받았다. 첫시간에 실제행동으로 했던 내용들은 나 스스로 마음을 여는데 열쇠가 됐다. 첫과정을 통해 내가 이 과정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이론강의 시간에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수동적이었던 집단상담의 시간에는 나 스스로 참여해야 할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해야 했다.

❖ 심화과정-임체

솔직함과 따뜻한 마음이 참 좋았다.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따뜻하고 본질적인 접근이라는 점이 좋다. 제대로 된 가장 알맞은 곳에서 심리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다행스럽다.

❖ 심화과정-축축해요

하루가 다르게 나를 들추는 데 익숙해졌고, 그런 내 모습에 나도 모르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었다. 자존감이 올라감에 기뻐다. 내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었다. 자만과는 다른 분명한 경계가 드러나는. 조급하게 예단하던 버릇들도 서서히 치유 되겠지 하고 마음을 열어 두니 나도 모르게 호흡이 늦춰졌다. 그전까지 허튼 생각, 닥치지도 않은 일에 갖던 불안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다. 남의 말도 이제야 제대로 들리는 것 같다.

❖ 때로는, 또 때로는... 난승법사

벌써 상담교육이 끝났다. 이번 과정은 틈틈이 짬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야 했다. 상담이든 교육이든 한 주를 주기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 줄 뻔히 알면서도... 서로 성격이 다른 활동들을 주마다 번갈아가면서 만나야 했던 수강생들의 고충은 나보다 더했으리라 짐작해 본다. 조금(?)은 미안하다. 그래도 끝까지 열성을 다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흐뭇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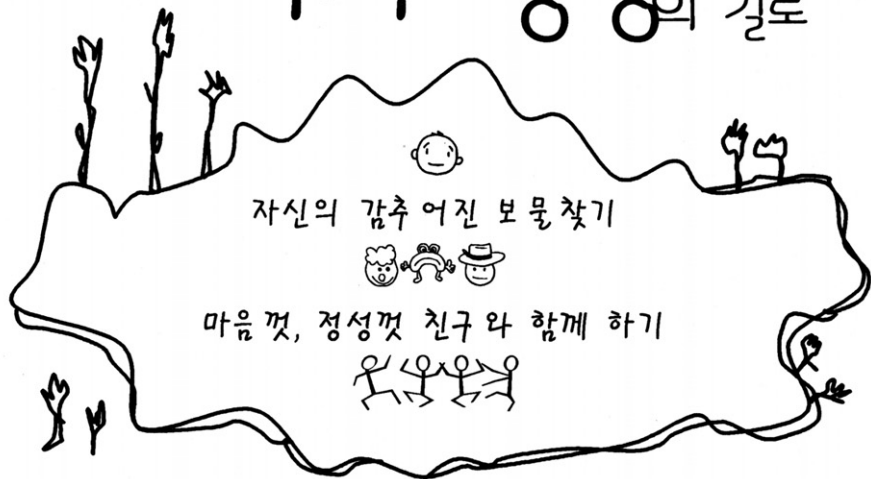


다. 대학원에서 상담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불교상담을 염두에 두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불교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상담은 그다지 매력도 없고 쓸모도 없어 보인다.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면서, 또 수많은 상담자를 보면서 불교상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때로는 흐뭇하고 때로는 허전하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되물어보면 뚜렷한 답이 나올 때가 거의 없다.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 때로는... 또 때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



- ① 일 시 : 8월 9일 ~ 8월 13일(4박 5일) ② 수련장소 : 정토수련원(경북 문경 소재)
- ③ 참가비 : 무료(교통비 포함) ④ 후 원 : 서울특별시
- ⑤ 대 상 : ① 서울지역에 살며
 - ② 부모가 실직상태에 있어서 마음이 불안한 청소년
 - ③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고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
 - ④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청소년
 - ⑤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명
- ⑥ 참가신청 : 청소년, 부모, 선생님의 전화나 면담을 통해 선정(587-8995 담당 김예경)
- ⑦ 준비물 : 필기구, 갈아입을 옷, 칫솔, 수건, 운동화, 샌들(또는 슬리퍼),모자
- ⑧ 모이는 장소 : JIS 강당(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정토회관 3층)
- ⑨ 찾아오는 길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출구 전방 200미터 골프스키골목

한국제이티에스 청소년 사업부

전화:587-8995 전송:587-8998 인터넷:http://www.jungto.org/jts E-mail:ypower@jungto.org





실업자를 위한 심성수련

행정자치부 지원 프로그램



깨달음의 장

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어느새 화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
순간 순간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깨어있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있게 됩니다.

☞ 예 택 : 4박 5일간의 수련비 20만원 지원

☞ 모집인원 : 매회 일반인 15명, 실직자 5명
(총 120명)

- ☞ 교육일정 ● 1차 : 7. 5(수) ▶ 9(일)
- 2차 : 7. 19(수) ▶ 23(일)
- 3차 : 8. 2(수) ▶ 6(일)
- 4차 : 8. 9(수) ▶ 13(일)
- 5차 : 10. 4(수) ▶ 8(일)
- 6차 : 11. 8(수) ▶ 12(일)



나눔의 장 [1] - 실직노숙자 집단프로그램

나눔의 장 은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마당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익히지요.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넉넉해지지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서 우리가 되는"
그 감동을 스스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대상 : 실직 노숙자쉼터 거주자.

☞ 예 택 : 20만원의 교육비 전액 지원
수련원에 가는 왕복 차비 지원

☞ 모집인원 : 매회 20명(총 60명)

- ☞ 교육일정 ● 1차 : 9. 27(수) ▶ 10. 1(일)
- 2차 : 10. 24(화) ▶ 28(토)
- 3차 : 11. 22(수) ▶ 26(일)



나눔의 장 [2]

☞ 참가대상 : 실직자 또는 실직 노숙자 (노숙자 쉼터에 있거
나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

☞ 예 택 : 20만원의 교육비 전액 지원
(단, 쉼터 거주자에게는 왕복차비 지원)

☞ 모집인원 : 매회 5명(총 25명)

- ☞ 교육일정 ● 1차 : 7. 5(수) ▶ 9(일)
- 2차 : 8. 2(수) ▶ 6(일)
- 3차 : 9. 6(수) ▶ 10(일)
- 4차 : 10. 4(수) ▶ 8(일)
- 5차 : 11. 8(수) ▶ 12(일)

실업자 및 실직노숙자 집단상담수행 결과 Workshop

- ◆ 일 시 : 2000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 5시
- ◆ 장 소 : 정토회관 2층 강당
- ◆ 참가대상 : 실업자 및 노숙자 프로그램 담당자
상담가 및 실업자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사람
- ◆ 연구발표 (자료집 발간)
- 수련을 토대로 세미나 자료집을 발간하고,
실직자 집단상담에 대한 평가 및 전망 workshop.

장소 : 문경 정토수련원 (☎ 0581-571-6031)

신청방법 : 전화 면접(당사자 또는 추천자), 이메일(jts@jungto.org), 팩스(02-587-8998)

한국JTS(☎ 02-587-8995) • <http://www.jungto.org/jts>



우리가 함께

후원의 밤 스키치



우리가 함께야 아름다운 세상



5월 24일 제이티에스 후원의 밤이 여의도 63빌딩에서 있었습

니다. 약 700여명의 후원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

리에 잘 치루어 졌습니다. 정토합창단의 '우리

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노래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정목스님의 차분하고 정감있는

사회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제이티

에스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보

고에 이은 법륜스님의 인사말씀에서 목이 메실만큼

여러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후원해 주신 분

들께 감사패를 전하고 서영훈 선생님의 격려 말씀이 있던 뒤에는 인도 수자타아

카데미 교장 선생님이신 슈레스 찬드라 선생님이 나오셔서 더듬거리는 한국말

로 감사의 말을 낭독하셨습니다. 영어로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도 극구 한국말로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정목스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에 애써 귀 기

울여 들어야 했지만 그 마음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이어서 북한에서 중국 국경



게여는



선을 넘어 지금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탈북형제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의 좋지 않은 식량사정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려운 생활을 전전하다 국경을 넘게 되었다고 회고하는 끝에 “북녘을 떠나기전 어머니 산소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몇번이나 봐 두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찾을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눈물과 아픔을 담아서 성산초등학교에 다니는 효진이가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너희들과 같이 소풍가서 마음껏 함께 뛰어 놀고 싶다”고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우리의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한영애씨의 잔잔한 노래와 김영준 선생님의 바이올린 연주, LMB singers의 화음이 함께하여 마음속에 여운이 더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넘치는 고마움과 가슴 아픈 안타까움, 마음이 통하는 감동과 밝고 잔잔한 희망 사이를 오가며 표정이 몇번씩이나 바뀌곤 했습니다. 라진 선봉 유치원 아이들이 먹는 영양식 스프와 주먹밥을 저녁으로 먹고 돌아가는 길은 모두들 가슴속에 작은 촛불 하나씩 켜 사람들이 반딧불처럼 세상속으로 퍼지는것 같았습니다.



‘후원의 밤’ 후원금 내주신 분

| 번호 | 이름 | 금액 | 번호 | 이름 | 금액 |
|----|--------------|-----------|----|----------------|---------|
| 1 | 가명옥 | 50,000 | 2 | 양창순 | 50,000 |
| 3 | 가섭암 | 100,000 | 4 | 양희찬 | 500,000 |
| 5 | 가인순 | 50,000 | 6 | 어윤주 | 100,000 |
| 7 | 강 희 | 50,000 | 8 | 어윤희 | 100,000 |
| 9 | 강상옥 | 100,000 | 10 | 엄정무 | 50,000 |
| 11 | 강우정(불교바로세우기) | 50,000 | 12 | 여래화 | 20,000 |
| 13 | 강원용목사 | 30,000 | 14 | 연기영 | 100,000 |
| 15 | 강지선 | 50,000 | 16 | 염진수 | 50,000 |
| 17 | 건협 | 50,000 | 18 | 오성룡 | 500,000 |
| 19 | 경불련 | 100,000 | 20 | 오성일 | 100,000 |
| 21 | 고광자 | 40,000 | 22 | 오영아 | 50,000 |
| 23 | 고정희 | 50,000 | 24 | 오정란 | 20,000 |
| 25 | 고현숙 | 200,000 | 26 | 오학순 | 50,000 |
| 27 | 곽영술 | 50,000 | 28 | 오현자 | 50,000 |
| 29 | 구동회 | 40,000 | 30 | 우리는 선우 | 50,000 |
| 31 | 구본태 | 100,000 | 32 | 우리민족서로돕기 | 200,000 |
| 33 | 구정숙, 김태기 | 100,000 | 34 | 우복례 | 50,000 |
| 35 | 우종남 | 50,000 | 36 | 국재성 | 50,000 |
| 37 | 원희룡 | 50,000 | 38 | 국제육수수재단 | 50,000 |
| 39 | 월드비전 | 100,000 | 40 | 권상례 | 50,000 |
| 41 | 유애경 | 50,000 | 42 | 권소영 | 100,000 |
| 43 | 유영신 | 50,000 | 44 | 권영미 | 100,000 |
| 45 | 유재현(세민재단) | 50,000 | 46 | 권영민 | 50,000 |
| 47 | 권정태 | 50,000 | 48 | 유지문 | 50,000 |
| 49 | 권혁건 | 50,000 | 50 | 유진옥 | 150,000 |
| 51 | 권형기 | 10,000 | 52 | 윤 원 | 20,000 |
| 53 | 김관희 | 50,000 | 54 | 윤남용 | 50,000 |
| 55 | 김광호 | 200,000 | 56 | 윤녹경(대자연보전환경협회) | 50,000 |
| 57 | 김기진, 마경숙 | 1,000,000 | 58 | 윤명숙 | 60,000 |
| 59 | 김대선 | 100,000 | 60 | 윤미경 | 50,000 |
| 61 | 김덕룡 | 300,000 | 62 | 윤민혜 | 50,000 |
| 63 | 김덕수(원불교) | 100,000 | 64 | 윤성숙 | 50,000 |
| 65 | 김도후(불교방송이사장) | 200,000 | 66 | 윤영주 | 20,000 |
| 67 | 김동균 | 200,000 | 68 | 윤정구 | 10,000 |



| 번호 | 이름 | 금액 | 번호 | 이름 | 금액 |
|-----|---------------|-----------|-----|---------------|-----------|
| 69 | 김동윤 | 50,000 | 70 | 윤정열 | 100,000 |
| 71 | 김명아 | 50,000 | 72 | 김명혜 | 30,000 |
| 73 | 음주환, 음승환 | 100,000 | 74 | 김미정 | 50,000 |
| 75 | 이강민(진각복지회) | 50,000 | 76 | 김미조 | 100,000 |
| 77 | 이경선 | 200,000 | 78 | 김미희, 윤희경 | 100,000 |
| 79 | 이경숙외 1인 | 100,000 | 80 | 김민경 | 50,000 |
| 81 | 이경애 | 50,000 | 82 | 김민경-부산 | 100,000 |
| 83 | 이경옥, 강동우, 강지석 | 100,000 | 84 | 김상순 | 50,000 |
| 85 | 이명운(우리집명상센터) | 50,000 | 86 | 김상호 | 30,000 |
| 87 | 이기수 | 10,000 | 88 | 김석용 | 50,000 |
| 89 | 이대훈 | 50,000 | 90 | 김선향 | 50,000 |
| 91 | 이동윤 | 50,000 | 92 | 김선희 | 50,000 |
| 93 | 이동출 | 500,000 | 94 | 김성곤 | 50,000 |
| 95 | 이미은 | 50,000 | 96 | 김성오 | 50,000 |
| 97 | 이상로 | 100,000 | 98 | 김성호 | 50,000 |
| 99 | 이상순 | 50,000 | 100 | 김성희 | 100,000 |
| 101 | 이상옥 | 50,000 | 102 | 김수경 | 5,000 |
| 103 | 이상진 | 50,000 | 104 | 김숙진 | 50,000 |
| 105 | 이성옥 | 50,000 | 106 | 김순기 | 50,000 |
| 107 | 이성원(원불교) | 100,000 | 108 | 김승희 | 10,000 |
| 109 | 이순규 | 50,000 | 110 | 김신교, 인순형, 주옥화 | 30,000 |
| 111 | 이순주 | 1,500,000 | 112 | 김애경, 민병덕 | 400,000 |
| 113 | 이연규 | 100,000 | 114 | 김양순 | 1,000,000 |
| 115 | 이연숙 | 100,000 | 116 | 김연숙 | 50,000 |
| 117 | 이영주 | 50,000 | 118 | 김영란 | 50,000 |
| 119 | 이오예 | 100,000 | 120 | 김영준 | 500,000 |
| 121 | 이용운 | 50,000 | 122 | 김영혜 | 50,000 |
| 123 | 이웃을 돕는 사람들 | 100,000 | 124 | 김영희 | 50,000 |
| 125 | 이윤상 | 100,000 | 126 | 김옥희 | 50,000 |
| 127 | 이응신 | 100,000 | 128 | 김우준 | 100,000 |
| 129 | 이인순-부산 | 80,000 | 130 | 김운배 | 50,000 |
| 131 | 이정자 | 50,000 | 132 | 김원일화 | 1,000,000 |
| 133 | 이종상, 이상훈, 김정은 | 100,000 | 134 | 김월금 | 30,000 |
| 135 | 이창영 | 50,000 | 136 | 김윤수 | 100,000 |
| 137 | 이춘경 | 100,000 | 138 | 김은경 | 100,000 |
| 139 | 김은숙 | 50,000 | 140 | 이학중, 김민경 | 100,000 |



| 번호 | 이름 | 금액 | 번호 | 이름 | 금액 |
|-----|-------------|---------|-----|-------------|-----------|
| 141 | 이혜영, 남선우 | 100,000 | 142 | 김익구 | 50,000 |
| 143 | 익명 | 10,000 | 144 | 김인순 | 50,000 |
| 145 | 익명 | 30,000 | 146 | 김자경(맑고향기롭게) | 50,000 |
| 147 | 익명 | 100,000 | 148 | 김재일(보리모니터) | 50,000 |
| 149 | 익명 | 100,000 | 150 | 김재희 | 50,000 |
| 151 | 임기연 | 50,000 | 152 | 김정례 | 50,000 |
| 153 | 임무규 | 50,000 | 154 | 김정희 | 50,000 |
| 155 | 임순옥 | 50,000 | 156 | 김중수 | 50,000 |
| 157 | 임정희 | 50,000 | 158 | 김진열 | 30,000 |
| 159 | 임종성 | 50,000 | 160 | 김진환 | 50,000 |
| 161 | 임향조 | 50,000 | 162 | 김충조 | 100,000 |
| 163 | 임효정 | 200,000 | 164 | 김태환 | 50,000 |
| 165 | 자비의전화 | 50,000 | 166 | 김학순 | 50,000 |
| 167 | 자재성 | 50,000 | 168 | 김혜영 | 50,000 |
| 169 | 장성호 | 30,000 | 170 | 김현숙, 유효진 | 50,000 |
| 171 | 장소환 | 400,000 | 172 | 김형섭 | 50,000 |
| 173 | 정국(콤포스타) | 50,000 | 174 | 김혜숙, 김윤희 | 100,000 |
| 175 | 정귀자 | 50,000 | 176 | 나눔문화연구소 | 100,000 |
| 177 | 정규호 | 50,000 | 178 | 나와우리 | 50,000 |
| 179 | 정남식 | 50,000 | 180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50,000 |
| 181 | 정덕스님 | 100,000 | 182 | 남정숙 | 1,000,000 |
| 183 | 정성운(현대불교) | 30,000 | 184 | 남해화학 | 5,000,000 |
| 185 | 정성훈 | 50,000 | 186 | 노금실 | 50,000 |
| 187 | 정운필(성산초교교장) | 50,000 | 188 | 노세호 | 10,000 |
| 189 | 정태식 | 50,000 | 190 | 노순옥(견지불교사) | 50,000 |
| 191 | 정토험합창단 | 300,000 | 192 | 노희순 | 50,000 |
| 193 | 정현숙 | 50,000 | 194 | 다일공동체 | 100,000 |
| 195 | 정혜정 | 50,000 | 196 | 대전정보 | 350,000 |
| 197 | 정화진 | 50,000 | 198 | 대한제당 | 100,000 |
| 199 | 조선경 | 50,000 | 200 | 도문스님, 환희스님 | 1,000,000 |
| 201 | 조성렬 | 100,000 | 202 | 도현스님 | 100,000 |
| 203 | 조순형 | 100,000 | 204 | 명심행 | 50,000 |
| 205 | 조영재 | 50,000 | 206 | 무주상 | 1,000,000 |
| 207 | 조영재 | 100,000 | 208 | 문근정 | 300,000 |
| 209 | 조종남 | 50,000 | 210 | 문두성 | 50,000 |
| 211 | 주경스님 | 50,000 | 212 | 문순홍 | 50,000 |
| 213 | 지오스님(서원사) | 100,000 | 214 | 미셀 마틀렛 | 50,000 |
| 215 | 진성(명상아카데미) | 100,000 | 216 | 민명희 | 50,000 |



| 번호 | 이름 | 금액 | 번호 | 이름 | 금액 |
|-----|---------------|-----------|-----|--------------|-----------|
| 217 | 진우스님 | 100,000 | 218 | 민영기(국제협력단총재) | 300,000 |
| 219 | 차경렬 | 100,000 | 220 | 박경미 | 50,000 |
| 221 | 차승섭 | 50,000 | 222 | 박경애 | 50,000 |
| 223 | 차정희 | 100,000 | 224 | 박광서 | 100,000 |
| 225 | 채선미 | 50,000 | 226 | 박남숙 | 50,000 |
| 227 | 청년정토 | 150,000 | 228 | 박덕환 | 50,000 |
| 229 | 청안사주지스님 | 500,000 | 230 | 박동만 | 1,000,000 |
| 231 | 최경락 | 50,000 | 232 | 박명기 | 50,000 |
| 233 | 최기영 | 30,000 | 234 | 박상필 | 50,000 |
| 235 | 최문영 | 50,000 | 236 | 박상희 | 100,000 |
| 237 | 최미선 | 50,000 | 238 | 박소영 | 50,000 |
| 239 | 최민희, 임길자, 전미애 | 500,000 | 240 | 박순근 | 1,000,000 |
| 241 | 최속희 | 50,000 | 242 | 박영희 | 50,000 |
| 243 | 최승천 | 30,000 | 244 | 박옥정 | 100,000 |
| 245 | 최영자, 권선자, 조정순 | 30,000 | 246 | 박완수(생명나눔실천회) | 50,000 |
| 247 | 최완옥 | 100,000 | 248 | 박은정 | 50,000 |
| 249 | 최우택 | 3,000,000 | 250 | 박인순 | 20,000 |
| 251 | 최윤억 | 300,000 | 252 | 박정자 | 50,000 |
| 253 | 최인선 | 100,000 | 254 | 박정호 | 20,000 |
| 255 | 최재용 | 1,000,000 | 256 | 박청수(원불교) | 300,000 |
| 257 | 최정심 | 50,000 | 258 | 박정숙 | 50,000 |
| 259 | 박향선, 김동일 | 100,000 | 260 | 최종남 | 100,000 |
| 261 | 박현숙 | 50,000 | 262 | 최향순 | 30,000 |
| 263 | 박흔희 | 50,000 | 264 | 최혜옥 | 50,000 |
| 265 | 박희순 | 50,000 | 266 | 코베트 | 50,000 |
| 267 | 방정은 | 50,000 | 268 | 통일부 인도1과 | 50,000 |
| 269 | 배광식 | 50,000 | 270 | 표총사 | 50,000 |
| 271 | 배기선 | 50,000 | 272 | 한갑수 | 100,000 |
| 273 | 배기운 | 50,000 | 274 | 한국국제봉사기구 | 50,000 |
| 275 | 배정희 | 50,000 | 276 | 한근수 | 50,000 |
| 277 | 배향옥, 한은숙 | 100,000 | 278 | 한마음선원 | 1,330,000 |
| 279 | 배현숙, 강주혁 | 50,000 | 280 | 한민족복지재단 | 50,000 |
| 281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 50,000 | 282 | 한선희 | 50,000 |
| 283 | 상륜스님(승가사) | 100,000 | 284 | 한연호 | 50,000 |
| 285 | 서영훈 | 500,000 | 286 | 한옥희 | 100,000 |
| 287 | 서울우유 | 2,000,000 | 288 | 한재광(지구촌나눔운동) | 50,000 |
| 289 | 서현순 | 50,000 | 290 | 한주신 | 50,000 |



| 번호 | 이름 | 금액 | 번호 | 이름 | 금액 |
|-----------------------|--------------|-----------|-----|-----------|------------|
| 291 | 선다압 | 3,650,000 | 292 | 한초자 | 50,000 |
| 293 | 설훈 | 300,000 | 294 | 함용마 | 1,000,000 |
| 295 | 성각스님 | 50,000 | 296 | 항원성 | 50,000 |
| 297 | 성수경 | 20,000 | 298 | 허갑순 | 50,000 |
| 299 | 손봉기(PIA) | 100,000 | 300 | 현대아산 | 30,000,000 |
| 301 | 송영희 | 50,000 | 302 | 현정 | 500,000 |
| 303 | 송월주 | 1,000,000 | 304 | 혜륜스님 | 150,000 |
| 305 | 송운옥 | 50,000 | 306 | 혜원스님(환회사) | 200,000 |
| 307 | 신귀덕 | 50,000 | 308 | 혜원스님외5인 | 300,000 |
| 309 | 신성애,김영희, 원용화 | 150,000 | 310 | 홍미자 | 20,000 |
| 311 | 신원선 | 50,000 | 312 | 홍은미 | 50,000 |
| 313 | 안희진 | 30,000 | 314 | 황금영 | 30,000 |
| 315 | 양민아 | 50,000 | 316 | 황인호 | 50,000 |
| 317 | 양애자 | 50,000 | 318 | 황재숙 | 50,000 |
| 319 | 양영우 | 50,000 | 320 | 황화숙 | 30,000 |
| 321 | 양윤희 | 100,000 | | | |
| 합 계 83,355,000 | | | | | |

《후원의 밤 물품지원 해주신 분》

- (주)63City에서 후원의 밤 장소사용 협찬
- (주)종근당에서 영양제, 피부병치료제, 결핵약 등 1천 2백만원 상당의 약품 후원
- (주)애경에서 유아비누, 세수비누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 후원
- (주)두산에서 재생비누 1000장
- 코오롱 등산학교에서 의류지원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축/원/의/소/리/

오 광 민

<서로가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

유치원 갔다온 아들이 대뜸 “엄마, 시계 사주세요” 그랬다. 나는 무심코 “뭐하게? 시계 볼줄도 모르잖아.” 그랬더니 “그냥 갖고 싶어요. 얼른 사주세요” 하면서 안사준다고 하면 때를 쓸 준비를 하는것 같았다. 당장 시계를 사줄 돈이 있든 없든 난 아들에게 “뭐든지 갖고 싶다고 다 갖으면 언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니?” 하면서 아이를 타일렀다. 아들이 하는 말이 “근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얼른 인터넷에 연결해 이곳을 보여줬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한해 50만명의 어린이가 죽어간다고 계산기를 들고 한달에 몇 명, 하루에 1,390명 꼴로 못먹어서 죽어간다고 설명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들에게 “갖고 싶은것 다 갖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언제 이 어린이들을 도와주니? 이 어린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니?” 하면서 아들과 나는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알겠어요. 저 불쌍한 어린아이를 도와 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7살인 아들은 작은 눈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자신이 다 똑같은 어린전사라는 것을 아는 듯 했다. 앞으로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말을 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래, 세상은 하나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굶으면 나도 배가 고프는 것을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식량이 왜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지 못할까? 왜 인류는 이런 문제는 외면할까? 오늘따라 너무나 미약한 내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당장이라도 먹을 것을 싸들고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보다 조금씩만 더 관심갖고 조금씩만 나뉘주자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생각하면 굶는 사람은 더이상 나오지 않는데....



추/원/의/ 소/리/

김민혜 님 ('후원의 밤' 전화 자원봉사자)

정토회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늘 즐거운 기분이 들었는데 막상 전화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나도 전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내가 집에서 한통화 받았을 때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는데 하는 입장에서 여러통화를 걸다 보니 '이것이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린다. 전화번호 목록에 표시를 잘못해서 통화한 분에게 또 걸은 경우가 있다. 못오신다는 말씀을 두번이나 하게 함이 못내 미안하다. 그로인해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자 님

처음엔 통화가 쑥스러웠는데 하다보니 말이 잘 나왔다. 무뚝뚝한 대답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참석하겠다는 분들의 말씀엔 감동적이고 오히려 나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을 해올 땐 힘이 생겼다.

이상임 님

한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행사를 알리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웠다. 초대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단체가 있고 또 초대장이 갔어도 전화받은 사람과 초대장을 본 사람이 달라서 행사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전화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오실까? 애타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제2차 JTS 국제워크캠프 실시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인도 등게스와리 지역에서 제2차 JTS 국제워크캠프가 실시됩니다. 의료봉사와 마을 주민들이 살 사랑의 집짓기가 주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 숙박교육이 6월 17-18일 안성 도안사에서 있었습니다. 80여명의 참가자중 대부분이 대학생이며 사전교육에는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JTS의 활동을 알리면서 인도생활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들간의 교류를 넓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제3차 국제NGO 인턴 자원봉사자(6개월) 파견사업 실시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제 NGO 인턴 자원봉사자 파견을 위한 인터뷰가 6월 22-23일 있었습니다. 152명이 접수를 했고, 70여명이 파견됩니다. 수자타아카데미에는 10명이 8월중 파견됩니다.

● 청년정토회 인도자원봉사단 파견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청년정토회가 주최하고 (사)한국JTS가 후원하는 인도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자원봉사 역시 등게스와리 지역에서 진행이 되며, 청년,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합니다. 각 마을에서 직접 기숙하면서 마을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유치원 교육을 돕는 일을 합니다. 청년정토회 고정희 이정현 법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017-292-9744 청년정토회: 587-8993

● JTS 인도델리 연락사무소 개소

인도 현지에 JTS 델리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화승 부장님이 상주하시면서 법인 등록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될 것입니다.

주소: E-33 Anand Niketan Newdelhi 100021 / 전화: 91-11-410-6705

● 이수진 간사 인도 파견

제2차 국제워크캠프와 관련하여 이수진 간사님이 인도에 갑니다. 8개월동안 머물면서 워크캠프 자원봉사자 및 중앙일보사를 통해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정토회 자원봉사단과 함께 합니다.



북한지원 사업

●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

7월 1일에 영양식 원재료 설탕 10톤, 분유 5톤을 선적했습니다.

● 청진 고아원 지원

5월에 청진 고아원에 이불, 요, 기저귀, 사탕 등 중국 금액으로 약 12만 위안어치 물품을 지원했고, 6월에는 어린이용 내복 2200명분을 지원했습니다.

● 농업지원

5월 9일에 여수항에서 보낸 비료 730톤 (요소440톤, 인산290톤)은 6월 초까지 라진-선봉지역과 운성지역 농장에 전달하여 모내기기에 맞춰 시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은 북한의 모내기가 늦어져 5월말에 도착한 비료를 사용하는데 시기가 늦지않아 다행이었습니다. 5월 28일 - 6월 4일 동안의 기간에는 중국의 농업전문가 2명이 우리가 지원하는 운성지역 농장을 방문하여 모판 상황과 병충해 발생등을 둘러보고 영농기술을 지원했고, 모내기기에 맞춰 살충제등 농약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모가 튼튼히 쑥쑥 자라기를 기원해 봅니다.

● 몽골지원

지난 4월 25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5월말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구호 밀가루 36톤이 무사히 피해 국민들에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업

● 청소년을 위한 통일준비교육

6월 10일 토요일 오전, 인천의 인일여고 강당에서 통일 준비교육이 있었습니다.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교육엔 2학년 6반과 9반 학생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북한가요 '휘파람'을 부르고, '북한 지도 맞추기', '가위 바위 보' 게임, 탈북자 사례를 둘러 읽으면서 북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로를 알아가는 상담교육(심화과정) 평가회

3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있었던 상담교육이 6월 29일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수료자 35명 중 희망자는 8월 15일-19일 강원도 현리에 있는 우리집 명상센터에서 수련을 합니다.



● 청소년 활동

사회여교 RCY반 학생 6명이 6월 16일에 사전교육을 받고, 17일에는 명동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서초고 1학년 학생 3명이 통일교육에 필요한 자료인 북한 지도만들기를 도와 주었습니다. 6월 24일에는 세류중학교 3학년 5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대학생 여름학기 봉사활동

6월 23일에는 한양대 학생 6명, 6월 27일에는 동국대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었습니다. 자료입력, 거리봉사활동, 청소년 수련교사, 홈페이지 제작관리, 통일교재 만들기 등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국제부

일어부문에서 활동하셨던 장윤희 간사가 6월 29일 일본으로 1년간의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일본에서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오시겠습니다.

기타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대상 선정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실업자 및 실직노숙자 집단상담 및 연구 워크숍”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JTS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금 확정

2000년도 서울시 민간단체 시정참여 사업에 청소년 수련(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성장의 길로)이 선정되어 부적응 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 전국사회복지대학생 정보화 캠프

전국 사회복지 대학생 정보화 캠프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제3차 국제 NGO 인턴봉사단 교육을 이 캠프를 통하여 합니다. 국제협력활동에 대해 여러 홍보물과 자료집을 비치하고 13일에는 제1차 국제 NGO 인턴봉사단으로 인도에 다녀온 한상술씨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0년 5월6일~6월 15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어린이결연

| | | | |
|--------------|--------|--------------|---------|
| 211-00404-11 | 신재동 | 211-02067-11 | 김동민 |
| 211-02051-11 | 조길래 | 211-02010-11 | 이성렬 |
| 211-01994-11 | 서흥렬 | 211-02068-11 | 김희원 |
| 211-02052-11 | 박상용 | 211-02011-11 | 김삼태 |
| 211-01995-11 | 김영희 | 211-02069-11 | 유용운 |
| 211-02053-11 | 박광일 | 211-02012-11 | 양경숙 |
| 211-01996-11 | 박모은 | 211-02071-11 | 이한우 |
| 211-02054-11 | 삼진스님 | 211-02016-11 | 김승훈 |
| 211-01997-11 | 김현우 | 211-02072-11 | 황준화 |
| 211-02055-11 | 송정남 | 211-02017-11 | 김경미 |
| 211-01998-11 | 송 준 | 211-02073-11 | 서자영 |
| 211-02056-11 | 김태우 | 211-02018-11 | 황경석 |
| 211-01999-11 | 김성희 | 211-02019-11 | 염태형 김소연 |
| 211-02057-11 | 정 철 | 211-02020-11 | 유기웅 |
| 211-02000-11 | 정현숙 | 211-02021-11 | 김정욱 |
| 211-02058-11 | 최명호 | 211-02022-11 | 여여성 |
| 211-02001-11 | 윤서연 | 211-02023-11 | 김영복 |
| 211-02059-11 | 이준구 | 211-02024-11 | 강순홍 |
| 211-02002-11 | 김옥순 | 211-02025-11 | 전세중 |
| 211-02060-11 | 정희연 | 211-02026-11 | 만성스님 |
| 211-02003-11 | 김해동 | 211-02027-11 | 송원석 |
| 211-02061-11 | 윤연경 | 211-02028-11 | 백순례 |
| 211-02004-11 | 한화갑 의원 | 211-02029-11 | 김오순 |
| 211-02062-11 | 일화스님 | 211-02030-11 | 김응전 |
| 211-02005-11 | 노재완 | 211-02031-11 | 안명찬 |
| 211-02063-11 | 강경모 | 211-02032-11 | 조태복 |
| 211-02006-11 | 박봉진 | 211-02033-11 | 서춘성 |
| 211-02064-11 | 김양식 | 211-02034-11 | 김이호 |
| 211-02007-11 | 김미경 | 211-02035-11 | 장은석 |
| 211-02065-11 | 조장순 | 211-02036-11 | 방형국 |
| 211-02008-11 | 백애란 | 211-02037-11 | 김원택 |
| 211-02066-11 | 홍영순 | 211-02038-11 | 김영성 |
| 211-02009-11 | 오재림 | 211-02039-11 | 고광현 |
| | | 211-02040-11 | 손창기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0년 5월6일~6월 15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211-02041-11 지현정
 211-02043-11 송천호
 211-02044-11 김안희
 211-02045-11 양수복
 211-02046-11 권대환
 211-02048-11 남공주
 211-02049-11 조영문
 211-02050-11 박노석

인도결연

111-02428-14 이상락행
 111-02429-14 문성호
 111-02430-14 김인하
 111-02431-14 홍영진
 111-02432-14 홍순해
 111-02433-14 임학중
 111-02435-14 신민정
 111-02436-14 김재식
 111-02437-14 최정묵
 111-02438-14 김재철
 111-02439-14 김미숙

단체결연

212-00163-11 아원공방
 212-00164-11 신명기획
 212-00166-11 강삼욱 가족
 212-00167-11 영남농업시험장
 212-00168-11 우리역사바로알기
 시민연대
 212-00169-11 이스트만정보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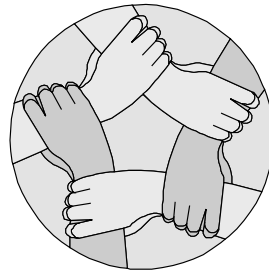
212-00170-11 자유학교 물고
 212-00171-11 (주)오성 E.I
 212-00172-14 인산새능력교회 청년부

부산법당

111-02434-14 정영옥
 211-02013-11 엄상훈
 211-02014-11 엄영건
 211-02015-11 손애숙

특별 후원금

유정숙 1,000,000
 윤철현 5,000,000
 김은애 100,000
 구지은 100,000
 김공량 한의원 106,470
 수인터내셔널 최택 260,000
 수인터내셔널 이태관 10,000
 인일여고 2학년 6반 36,090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6. 15 현재 (※ 미결연된 곳입니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6. 15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6. 15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6. 15 현재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시는 단체나 후원인께서는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북핵어린이를 살리는
결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금 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로번호 : 6921361
국민은행 086-01-0339-246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이티에스에 기부금을 납부하신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2조 1항 1호 타목, 시행규칙 17조 1항(종전 17조 50호), 부칙(1996.3.21) 7조에 의거, 개인의 경우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정기 거리모금 행사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품후원

지난해 연말경 몇군데의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의류, 의약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참에 주십시오!

